

국제개발협력 추진 사례연구:

라오스 보험교육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Pursui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Focusing on Insurance education in a Lao University

정홍주* Hong-Joo Jung, 이상림** Sang-Rim Lee,
손정현*** Jeong-Hyun Son, 최아름**** A-Reum Choi,
임소영***** So-Young Lim, 왕선혜***** Hsuan-Hui Wang

| 목 차 |

I. 서론
II.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III. 보험교육지원의 중요성

IV. 라오스 보험교육지원 추진사례 및 추진내용
V.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국제개발협력은 오늘날 국제외교와 경제협력의 양측에서 범세계적으로 중요시되는 한편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도 증대와 더불어 개발협력의 중요성도 점증하고 이와 관련 무역관련 학회간 국제교류도 강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개

* 성균관대학교 교수, jungprokorea@gmail.com, 주저자

** 목포대학교 교수, sangrim@mokpo.ac.kr, 공저자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 연구원, snusfa@naver.com, 공저자

****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chareum@hanmail.net,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belle0131@naver.com, 공저자

*****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aacareyaya@hotmail.com, 공저자

발협력도 무역학의 대상으로 학문적 연구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의식주와 보건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개발협력은 무역 등 서비스분야 고등교육 측면의 활동과 연구는 이제 초기인 바, 이에 실제로 동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한 실제 경험사례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개발협력 방식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추이, 그리고 의식주와 보건 등 기초수요 중심의 전통적 개발협력의 평가와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보험 등 서비스 분야 고등교육의 개발협력 활용 필요성, 이와 연관된 일반적 인식부족 (긴급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사례 부족, 새로운 혁신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실제 추진된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의 현지 기초조사 경험과 본 조사 추진을 위한 제안서 작성과 제출, 그리고 평가결과 등의 사례를 보고하고, 이를 통해 향후 보험, 무역,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또는 서비스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국제개발협력, 라오스, 보험, 역량강화, 고등교육

I. 서론

국제개발협력은 무역학분야의 최근 연구주제로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무역학회지에 총 4편의 논문이 게재된 바 있다. 즉, 정홍주 외(2013.6)의 무역학 교육지원 연구, 최창환과 조성제(2013.11)의 아프리카와 농업분야 연구, 이호건(2016.2)의 축진적 원조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오늘날 수출입,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정부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물론 기업, 대학, 개인 등 민간차원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분야 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이며, 그 외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산, 평화와 안전 유지, 지속가능 개발 등이 추가적인 목적이다. 빈곤문제 해결은 세계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생계와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기초문제가 분명하지만, 이는 결과이고 궁극적 목적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한 단순한 소득이전이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오늘날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바, 소득은 성장의 결과이며, 소득을 단순히 배분해서 성장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빈곤해결을 위한 방안중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은 직접적, 일시적 물적 원조에 치우쳐 지속가능한 빈곤해결 수단이 되지 못했다. 의복, 식품, 보건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경제활동과 취업이 가능

하도록 촉진하는 형태의 개발협력이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개발협력의 부진한 성과에서 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취업활동을 촉진하는 지식공유 프로그램이 적극 개발되는 한편 이런 무역이나 경영과 연관된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반면 무역,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분야 고등교육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해서는 아직 가시적인 활동이 거의 없다. 이는 후술하는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연구의 추이와 인식부족, 서비스분야의 경제활동 영향력에 대한 설득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작성된 본 논문은 2016년 2월부터 라오스의 보험교육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사례와 이 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연구진의 실제경험을 공유하고자 작성된 사례보고서 형태의 연구논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국제경제, 국제경영, 무역상무 등 무역학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 분야의 고등교육 국제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 누앙프라방 지역 수파누봉대학교의 보험교육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례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즉, 서론에 이어 II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을 살펴보고, III에서는 보험교육지원의 중요성, IV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인 라오스 보험교육지원 추진사례 및 추진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V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II.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1.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1940년대를 태동기로 본다(KOICA ODA 교육원, 2016).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정치적으로 독립한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UN이 중심이 되어 난민보호, 식량과 의약품 지원, 농공산품 제공이 이루어지는 한편, UN헌장에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천명했다. 그 이전단계의 국제개발협력은 교회나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국제구호 활동이나 미국의 자국이익을 위한 남미 기술지원 등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도약기(1960년대), 정체기(1970년대), 위기(1980년대), 재도약기(2000년대) 등으로 구분한다(KOICA ODA 교육원, 2016). 1960년대

에는 산업화를 위한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와 수입대체산업 전략이 추진되었고,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은 1970년대 말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두 차례의 유가파동과 금융시장 자유화 조치로 범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1980년대 이후 자리를 잡아가며, 개도국은 IMF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작업이 이루어졌으나 행정체계 부재와 부패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1950년대 마셜플랜 이후 30여년간 원조효과가 지지부진하자 원조에 대한 회의와 함께 원조의 책임성이 강조되어(조광걸, 2016), 2000년대 이후에는 개발협력의 효과에 대한 반성과 함께 빈곤의 다면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등장하여 15년 주기의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¹⁾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²⁾ 추진된 바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할 범세계적 목표는 유엔이 주도하는 기존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에서 2015년 9월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이행(移行)되고 있다. SDGs는 국제개발협력이 경제문제뿐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빈곤과 경제사회의 발전이라는 과제는 개발도상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 아래 채택되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저개발국에 대한 경제협력 또는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상호 간, 개발도상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발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며,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주창한 천부적 인권을 누리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를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또는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이라고 한다(KOICA ODA교육원, 2016). 1970년대 이전에는 ‘국제개발원조’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원조’ 대신 ‘국제개발협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이유는 ‘원조’라는 단어가 공여국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국제개발협력은 공개발원조(ODA), 국제개발정책, 개발원조 등의 용어로도 표기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장준호 2008).

국제사회의 ODA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유럽 재건에 지원된 미국의 유럽부흥계획(Marshall Plan)을 그 시초로 보고 있다. 이후 1950, 1960년대를 지나는 냉전시기 동안

1) MDGs는 UN에서 2000년에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SDGs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2030년까지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함께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원조 영역에서도 이어져 정치적 이념에 의한 신생독립국 지원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 들어 찾아온 세계경기 침체와 더불어 1980년대에는 선진국들이 원조피로현상을 겪으며 ODA가 잠시 감소하였으나,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ODA는 이전 보다 다양한 이슈와 포괄적 인간개발을 목표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전 국제사회 차원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하는 등 빈곤 퇴치와 인간개발을 위한 역사상 유래 없는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2).

2000년 UN총회에서 189개국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합의된 개발협력 목표로서, 다차원적 빈곤 해결을 위한 공동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가 더 이상 개도국자체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지구촌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절대빈곤과 기아, 교육, 보건, 환경, 개발협력 등을 포괄하는 8가지 목표와 60여 개의 측정 가능한 지표를 사용하고 달성 기한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이라 할 수 있다. 공여국이나 기관에 따라서는 빈곤감소 외에도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산, 평화와 안정 유지,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다양한 상위 목적을 가지고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공여국이 채택하고 있는 목적은 빈곤감소이며, 빈곤퇴치는 경제, 사회, 정치, 안보, 환경 측면 개발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될 수 있다는 면에서 위와 같은 목적들은 서로의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빈곤을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의 경제적, 인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보호적인 역량을 다차원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과 성평등의 요소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ODA는 협력 주체에 따라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양자간 원조는 원조 공여국에서 수원국(개발도상국)으로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원자금 상환조건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무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원조로서 개도국은 원조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으며,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식량원조 등을 포함한다. 유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원조로서 개도국은 원조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다.

다자간 원조는 수원국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분담금)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간 원조에 비해 국제기구가 보유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용하고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분야에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용이하다. 또한 개도국 정부에 대

해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고, 정치·군사적 위협으로 양자간 원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국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점이 있다.

Ⅲ. 보험교육지원의 중요성

1. 국제개발협력에서 보험교육의 중요성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핵심목표인 개도국(또는 수원국)의 빈곤해결이나 소득증대는 기존의 방법 외에 새로운 방법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SDGs의 17개 목표는 빈곤, 기아, 보건, 교육, 양성평등, 물, 에너지, 일자리, 산업(경제), 불평등, 도시(주거), 소비,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환경), 거너번스, 파트너십 등으로, 그 중 중심목표는 빈곤과 기아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득이전형 개발협력을 지속해 왔으나,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일거리(기업)와 일자리(고용)가 형성된다면 빈곤과 기아를 포함한 여러 개의 문제가 동시에 해소될 수 있다. 즉, 소득의 제공이 아니라 소득원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기업 형성을 촉진할 금융의 중요성과 금융을 지원하는 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를 들어 무역이 해상보험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 왔고, 오늘날 자동차 운행, 광산 채굴, 관광업, 농업, 공업 등 모든 업종의 바탕에 보험과 리스크전가가 기본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내용인 보험분야 역량강화를 개도국에 추진하고자 했고, 그 대상으로 라오스를 선정했다. 라오스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³⁾ 세계최빈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가 집중된 국가의 하나이다⁴⁾. 라오스는 1986년 신경제제도(New Economic Mechanism; NEM)를 도입한 이래 모두 8차에 걸친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을⁵⁾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광업 역량강화도 최근에 라오스를 대상으로 채택된 바 있지만,

3) DAC는 OECD의 하부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원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선진국들의 원조정책의 조정과 전략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4) KOICA(2015) 대외무상원조 실적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외무상원조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111,767백만 달러의 규모로 총대외원조의 약 2%를 점하고 있다.

5) 라오스는 모두 8차에 걸친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 교육의 확대, 빈곤감소, 국민소득 향상 등을 국가발전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대외협력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라오스의 기업형성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보험은 관광보다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유발계수 측면에서 보면 관광(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의 계수(0.763)에 비해 보험(금융 보험)의 계수(0.847)가 더 크다(한국은행, 2016). 보험분야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발전격차가 매우 큰 분야이며, 기업활동의 바탕이 되어 국가를 발전시키는 주요 원천이다.⁶⁾ 이러한 점은 보험분야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무릇 경제성장에는 일반적으로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 필요하고 이들이 효율적으로 결합되어 작용해야 하는데, 현재 라오스는 자본의 부족 및 비효율적 구성으로 인하여 빈곤탈피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자본의 효율적 운영을 가져오는 보험분야의 개발 및 발전은 라오스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는 소위 적정기술의 개념(김정태, 2012)에 미루어 보험은 아직 개도국의 적정기술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지도 모른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ies)이란 현지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제품과 기술을 총칭한다. 본래 이 용어는 선진국의 최신기술도 아니고 개도국의 토착기술도 아닌 중간정도의 발전단계에 있는 중간기술(intermediary technology)을 지칭했으나, 오늘날에는 기술의 현지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적정기술로 변질된 것이다(김정태, 2012).

보험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긴급성과 적정기술성을 갖춘 분야이다. 보험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리스크 평가 및 관리 그리고 보험 비용의 절감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제성장과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보험전문 인력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을 것이며, 저개발국에서는 지역중심의 마이크로 금융 및 보험(micro finance 및 micro insurance)관련 사업의 창업도 이루어질 수 있다(Van Leeuwen, 2016; Bhattacharya, 2016, UNDP, 2011). 이런 보험분야의 발전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의 빈곤탈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긴급성과 적정기술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라오스의 경우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적자원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⁷⁾ 이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제7차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고등교육분야를 과제로 설정하여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왔으며(채재은, 김철우, 2014), 특히 2016년

6) 특히 보험업의 발전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UNCTAD(1964년)에서 최초로 인정한 이래 많은 연구와 World Bank(2014년)의 최근 보고서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다.

7) 기존의 MDGs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된 보편적 초등교육(초중등교육)분야는 MDGs 목표를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최근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수요가 현저히 늘고 있다.

수립된 제8차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는 제1의 목표인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 달성에 이어 인적자원의 개발을 제2의 목표로 설정하여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연계된 교육의 강화를 통해 경제전환기에 적합한 산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역량강화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개발을 지속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생의 20%를 고등교육에 진입하도록 한다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분야의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라오스와의 국제협력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국내외 사례(마이크로보험 활용사례 중심)

마이크로인슈어런스(Micro Insurance)는 중·저소득국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혁신적인 보험 상품으로, 주로 저소득·빈곤층을 타겟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범위가 넓으며 배상방식이 단순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빈곤층 지원을 위한 금융자문그룹(International poverty assistance Consultative Organization, CGAP)은 마이크로인슈어런스란 저소득, 빈곤층 인구에게 리스크 사건 발생확률 및 비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 비율의 소액 보험료를 받음으로 그들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험을 통하여 사회보장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저소득 인구를 위한 마이크로인슈어런스는 농촌 지역 빈곤을 퇴치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고 사회보장 제도 보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⁸⁾

국내의 경우 글로벌 보험사가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시장을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으로 인식하며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소액보험을 행하고 있는 단체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다. 현재 보험회사를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험가입 및 유지를 지원하는 소액보험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수혜대상의 특성에 맞게 지원분야별로 구분하여 1) 저소득층아동 보험가입 지원, 2) 장애인복지시설 보험가입 지원, 3) 미소금융 이용자를 위한 보험가입 지원, 4) 지역아동센터 보험가입 지원을 펼치고 있다.⁹⁾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촌 지역의 저소득 인구는 마이크로인슈어런스의 주요 판매 대상이고 그들의 생활수준 및 교육수준은 도시 인구보다 낮기 때문에 마이크로인슈어런스의 상품을 설계할 때 저렴한 보험료와 특정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마이크로인

8) www.scfpym.gov.cn/show.aspx?id=24634, 2017년 11월 3일 검색

9) <http://www.kinfra.or.kr/home/main/index.do>, 2017년 11월 4일 검색

슈어런스 상품의 특징에는 저렴한 보험금, 편리한 비용 납부, 적당한 보험액, 짧은 보험 기간, 그리고 특정 리스크 담보 등이 있다.¹⁰⁾

국제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시장에서 보았을 때 상품 종류는 크게 신용생명보험, 단기생명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양로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필리핀, 페루, 인도 등 국가는 신용생명 보험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는 건강보험, 질병보험, 그리고 양로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재산 및 가축에 관련된 소액 보험의 리스크가 비교적 높으며 보험금이 낮고,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명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양로보험처럼 많이 제공되지 않는다.¹¹⁾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상품은 건강, 생명, 신용, 가축, 재해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소액건강보험 및 소액생명보험의 발전이 가장 두드러진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월수입은 600타카에서 5,000타카까지의 가정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는 장기적인 저축형 소액 양로보험을 위주로 제공하고 그 상품은 고객의 생명 보장을 제공한다. 보험 상품이 만기되면 약속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중도에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보험의 현가로 대출 신청하거나 결산할 수 있다.¹²⁾

인도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는 상업보험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단일 리스크만 커버한다(林熙·林义, 2008). 인도에서 마이크로인슈어런스는 대리방식, 즉 한 상업보험회사가 한 대리기구와 합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준비금, 상품개발, 가격결정을 담당하며 대리기구는 제품판매, 배상 그리고 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인도 Tata그룹과 미국 AIG그룹이 합자 방식으로 만든 Tata AIG생명보험이 좋은 예이다. Tata AIG그룹은 적극적으로 인도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시장을 개발하고 소액 생명보험 상품을 만들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보장 기간은 10년(10년 만기)인 Ayushman Yojana이다. 이 상품은 보험소지자는 보험 기간이 만기되었을 때까지 리스크(사건)가 일어나지 않으면 납부된 보험료에 보험료의 25% 배당부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에 리스크(사건)가 일어나면 보험 수혜자는 최저 5,000루피, 최고 50,000루피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¹³⁾

10) 何欢, “小额人身保险发展的国际比较分析及启示”, 硕士论文, 2009, p.23.

11) 何永嘉, “我国小额保险的运作模式研究”, 《华北金融》, 2009年 第11期, 2009, p.38.

12) 刘爽·李芳, “小额保险“孟加拉国特点”之思考”, 北京市: 中国保险, 2011年 8月, p57.

13) 林熙·林义, “印度农村小额保险发展经验及启示”, 《保险研究》, 2008年 第2期, 2008, pp.90-91.

IV. 라오스 보험교육지원 추진사례 및 추진내용

1. 보험교육 추진사례

라오스 보험교육지원을 위해 추진한 본 사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KOICA)와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이하 KAIDEC)가 함께 하는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아카데미 파트너)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교육지원사업, KOICA ODA 교육원의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그리고 KOICA 민관협력 보조금사업도 참고하여 살펴본다.

1) KOICA-KAIDEC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아카데미 파트너)

KOICA와 KAIDEC은 개발협력 분야에 처음 진입하는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수행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수사업을 발굴하는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개발협력 사업 내에 접목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개발협력 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자립과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4-5개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반교육과 심화교육을 거친 참가자들에 한하여 사업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¹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가자들 대다수는 KOICA 민관협력 보조금사업 제안서 제출을 위한 밑거름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S대학교 보험연구센터 연구팀은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앞으로의 라오스 보험교육지원 추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동 설명회 에 의하면 전년도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선정된 전년도 연구팀은 총 8개 기관(동신대학교, 안산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경북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차의과대학교)으로 모두 2016년 5~6월 현지 지역조사를 수행하였다(KAIDEC, 현지조사 종합보고서, 2016).

2016년 7월 열린 현지 지역조사 결과보고회는 각 연구팀이 수행한 지역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 현지 수요에 부합한 사업 발굴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로 추

14) <http://www.kaidec.kr/>

후 라오스 보험교육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 8개의 기관은 각기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보건, 초등교육, 고등교육, 직업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쳤다. 그 중 안산대학교의 “국립 라오스대학 호텔관광학과 역량강화사업 기반 조사”는 라오스 보험교육지원 사업과 학과만 다를 뿐 유사한 양상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본 연구팀 소속 교수는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와 보험학과 신설 및 교육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이미 2016년 2월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위치한 수파누봉대학교에 방문하여 대학 간 연계를 통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방문이후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수립한 후 총장, 국제처 담당 교수와 이메일 연락을 하여 협력제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고, 상대방부터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하여,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와 보험학과 설립에 대한 협력을 위한 MOD체결 약속 및 현지 대학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2016년 9월 제2기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아카데미 파트너 대상) 설명회 재참석 후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들을 재확인한 후, 본격적인 지원을 위하여 KOICA와 KAIDEC이 함께 하는 일반교육을 2016년 10월 21일-22일 2일간 연구책임자 등이 받았다. 본 교육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분야, 주제 등에 대한 전반적 교육과 PCM(Project Cycle Management), PDM(Project Design Matrix), 성과관리(Monitoring & Evaluation) 등 개발도상국 현지 조사연구를 위한 이론과 사례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필수요건인 심화교육에 신청 후 다행히 선정되어 2016년 11월 25~27일 연구책임자와 연구진 일부는 3일간 교육을 받았다. 심화교육에서는 일반교육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개도국 현장에서의 사업사례 공유, 고등교육 역량강화 사업 기획 실습 및 PDM 작성 워크숍, 개도국 현장에서의 질적 연구조사(이론, 실제), 개도국 현장에서의 Field Work방법, M&E심화과정: 영향평가의 기획과 수행, 개도국 협장조사 자료 분석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렇듯 두 차례에 걸쳐 교육 받은 내용과 수파누봉대학교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하여 얻은 라오스 현지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2016년 12월 초 제2기 프로그램 현지 지역조사 지원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다행스럽게도 12월 말 지원기관 선정 안내를 받았다. 제2기 프로그램 지원기관에 선정된 후, 조사원 모두 2017년 1월 6일-7일 2일간 열린 현지 지역조사 사전교육에 참여를 하였고, 2월 말 라오스 현지 지역조사 방문을 위하여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와 회의 일정 확정, 주한 라오스 대사관을 통한 관련 정부기관(교육부, 사회노동부)에 사전 접촉 및 회의 일정 확정, 라오스 현지 보험회사들과의 회의 일정 확정 및 조사 관련 자료 수집, 기존 선행연구 검토, 설문지 작성 등과 같은 사전준

비를 행하였다. 이후 2017년 2월 22일 - 27일, 5일간의 라오스 현지 지역조사(비엔티엔 정부기관·보험회사, 루앙프라방의 수파누봉대학교)를 통하여 보험교육에 대한 라오스 정부, 대학 관계자들 그리고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의견 확인, 라오스 현지의 보험교육에 대한 실정 등을 살펴보았다. 그후 KOICA의 지원사업에 2017년 7월말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아깝게도 탈락했다.

2) 한국연구재단 글로벌교육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UN의 지속가능목표(SDGs)의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글로벌교육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교육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그들의 여건에 적합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교육역량 강화 및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¹⁵⁾

이에 사업과제명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신설을 위한 예비조사”로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 사업 지원 분야에 2016년 5월 지원하였다. 이는 SDG 1(빈곤퇴치), SDG 2(기아해소), SDG 4(공평한 교육보장 및 평생교육), SDG 8(완전고용 및 경제성장), SDG 9(산업화), SDG 10(국가 내부와 국가 간 불평등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며, SDG 3(모든 이의 건강한 삶, 웰빙 보장), SDG 5(성평등, 여성 및 여아 역량 강화), SDG 11(도시 및 생활환경), SDG 16(평화사회 촉진) 그리고 SDG 17(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 연구제안서는 불행하게도 채택되지 않았고, 사후확인한 바로는 주제관련 전문성은 충분하나, 주제의 시의적절성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보험교육의 중요성이나 적절기술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KOICA ODA 교육원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 및 참여도 제고,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 및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¹⁶⁾ 이는 연간 10억 규모로, 매년 사업 선정 대학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 개

15) <https://www.nrf.re.kr>

16) <http://oda.koica.go.kr>

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¹⁷⁾ 사업 도입 초기에는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대한 이해 증진이 주요한 목적이었으나, 점차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로 탐색 및 실무역량 강화, 분야별·지역별·이슈별 연구역량 강화로 사업의 목적이 확대되었다. 이에 사업내용 역시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개설 외에도 해외현장학습 지원이 추가되었다.¹⁸⁾

S대학교 무역연구소는 무역학과의 전공특성 및 위상, 무역과 금융, 해외투자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의 의미를 높이고자 2016년 11월 본 사업에 지원을 하였다. 기존에 연구사업과 관련한 금융교육과정, 국제화 관련 과제 수행, 외국과의 교육분야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왔으므로 연구소의 기존 경험을 토대로 학과 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국제개발협력은 국제대학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데, 무역학과 금융학 분야 개발협력 연구와 교육이 확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2017년 1학기 국제개발협력과 해외투자, 2017년 2학기 국제개발협력과 금융보험이라는 교과목 아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리더십 제고, 경험적 이해의 제고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도모하여 민간부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이 본 사업의 목표였다. 해외 현장봉사 국가로는 라오스를 선정하였는데, 라오스는 국가 경제개발의 핵심요소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 빈곤감소, 중소기업 육성 등을 핵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다른 개발도상국 국가의 사례와 기존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보험업과 금융업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정시 사업 결과로 KOICA, EDCF, 교육부 등이 수행하는 원조사업과의 연계, 협력 등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의 보험학과 개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초 인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 연구 축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본 제안서 역시 채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전에 이미 과목이 설치운영 중이어야 하며 학생수가 과목당 3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4) KOICA 민관협력 보조금사업

KOICA 민관협력 보조금사업은 비영리 시민사회단체(CSO) 및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파트너 기관의 전문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지역 주민의 인간기본생활욕구(BHN:Basic Human Needs) 충족과 지역사회 자립적 발전, 개발도상국

17) 윤종혁 외, 「글로벌 교육협력연구, 사업의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3, pp.49-50.

18) KOICA ODA 교육원, 「2014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가이드라인」, KOICA ODA 교육원, 2014.

고등교육 역량강화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국내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목적은 개발협력의 주요 수행 주체로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빈곤 퇴치 및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앞서 지속적으로 지원 및 실행해 온 라오스 보험교육지원사업 내용을 토대로 S대학교 글로벌보험연구센터는 총 사업비 7억원, 2018~2020년 3년간의 보험분야 고등교육 역량강화 사업으로 2017년 7월 KOICA 민관협력 보조금사업 공모에 지원하였다. 2017년 2월 라오스 현지지역조사에서 얻은 결과와 현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보험학과 설립과 관련된 학교 측의 추가 답변 사항 등을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기존 인큐베이팅 사업 시 실행하였던 보험교육 분야 문헌조사와 더불어 현지 지역조사에서의 현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정부, 대학 및 보험회사 관계자)를 통하여 얻은 내용들로 실제적인 제안서 작성이 가능하였고, 그 후 맺은 MOU와 수파누봉대학교 측의 교육부 보험학과 인가신청 등으로 라오스 측의 관심에 대한 타당성 역시 뒷받침을 해두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동 제안서는 서면심사단계에서 채택되지 않은바, 이 역시 보험분야에 대한 시급성에 관해서 심사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궁극적으로 보험을 통한 취업, 창업, 사업의 촉진이 가능하다는 점은 의식주와 같은 일차적인 욕구에 비해 후순위로 평가되는 점에서 이런 부정적 시각의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라오스 재무부의 보험감독국장이 면담과정에서 토로한 애로사항 (정부예산 확보상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2. 라오스 보험교육 추진내용

1) 개관

본 제안서의 주요 내용으로서 라오스 선정이유와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안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는 라오스의 3대산업인 관광, 광업, 수자원 등 전략 인프라 개선, 중·고등교육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자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꾸준히 도모해왔다. 하지만 KOICA와 KAIDEC의 최근 민간 인큐베이팅사업 8개 과제 중 라오스는 관광학과의 역량강화, 농촌지도인력, 영유아 교육, 학교보건, 초등교육, 정신간호 등에 대한 현지조사가 있었다. 사회간접자본이나 기초 역량 개발 지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빈곤탈피를 위해서는 근로기회의 확대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역량 개

발이 요망되므로 그 방안으로 보험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보험분야는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의식주나 보건에 비해 일반적으로 긴급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보험의 발전은 금융발전 및 투자촉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과 경제활동의 기본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높다고 하겠다.

보험업의 발전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UNCTAD(1964년)가 최초로 인정한 이후 많은 연구와 최근 World Bank(2014년)에서도 확인함에 따라 세계 주요국에서는 이를 인식하고 보험학과 보험의 발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 고부가가치 선도 산업, 2)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3)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과 유지, 4)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등 4가지 요소가 필요한 데 보험은 이들 4가지 요소의 확보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즉 각각은 1) 손해보험, 2) 사회보험, 3) 생명보험(교육보험 포함), 4) 대부분의 보험과 차례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국, 독일, 스위스 등 세계경제선도국의 최고명문대학에 보험학과를 두고 있고(북경대, 칭화대, 쉐넌대, 민헨대, 생깁런대 등), 미국과 일본 등도 경제성장 초기에 Harvard, Wharton, 히도츠바시, 와세다 등에서 보험교육이 활발했다.

본 연구의 대상국인 라오스의 Micro Finance Association(미소금융협회)에서도 미소금융대출 확대를 위한 안전장치로 농작물재해보험과 신용생명보험의 도입과 보강을 강력히 희망하며(2017년도 4월말 현지 인터뷰), 한국도 보험을 통해 고용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경험이 있다.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대출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데 이런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보험이 존재해야 대출을 확대하고 기업 활동을 진작할 수 있는 바, 현재 라오스는 보험이 없어서 소액금융대출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험은 국가의 전 산업분야에 고루 활용되며, 특히 경제성장 과정에서 고용창출은 물론 투자재원의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¹⁹⁾ 라오스의 현재 주요산업의 농업, 광업, 관광업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현재의 선도 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구축, 대학생들의 취업률 증대, 일반 국민의 보험금융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라오스에는 보험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이로 인해 보험이 다른 경제활동을 지원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전문가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대학 보험교육을 통해 양성된 보험전문가를 보험 산업 또는 보험시장에서 활동토록 하는 것은 금융발전, 고용창출, 빈곤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대학에서 보험교육을

19) 한국도 6.25 전쟁 후 복구과정에서 가정주부들을 중심으로 교육보험을 판매하여 생활비 조달과 가계 교육 지원, 기업의 투자재원 역할을 한 바 있다.

받은 보험전문가가 활동함으로써 보험 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금융업과 주변산업을 성장하게 하고, 산업전반의 발전에 토대를 이루게 할 수 있다. 보건이나 의식주 지원 등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저개발국 지원에서 탈피하여 보험발전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라오스의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험분야 사업수요

본 제안은 보험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가의 경제개발 및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형성과 운영, 그리고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에 기반하여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안을 위하여 라오스의 보험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²⁰⁾ 조사를 통하여 라오스의 정부, 대학, 산업 등의 보험역량강화 수요를 확인하였다. 라오스의 대학, 정부, 산업에서의 보험역량강화 수요는 이미 확인했고(2개의 MOU도 이미 체결), 수파누봉대학교는 우리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에 보험학과 인가신청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다만 교재와 전문교수의 확보가 필요한 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도움을 원하고 있다. 아래는 인터뷰·포커스그룹 및 문헌조사 결과(제2기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현지조사 종합보고서,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 보험학과 신설 수요조사, 2017)에 관한 내용이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교 졸업생의 70%가 불안정한 취업(여행 가이드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라오스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니폼이나 양복을 입을 수 있는 직장인 보험금융업 등 양질의 일자리(취업기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교육 수혜자에 대한 양질의 안정적 취업기회 부족은 결국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지속적인 빈곤의 상태로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이 궁극적 빈곤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문제의식 하에 본 내용을 제안하게 되었다.

20) 제2기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현지조사 종합보고서,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 보험학과 신설 수요조사(2017)

〈표 1〉 보험역량강화 수요조사

대상		주요내용
인터뷰	교육부 노동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지 • 보험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큰 관심 • 대학의 수요조사결과가 라오스 교육부 의사결정에 중요함을 강조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 및 동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학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 • 보험학과 신설 외에 기존 금융학과 역량강화도 추가요청 • 보험학과 신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지원 및 관련 보험회사 현지 조사 협조를 약속 •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와 MOD체결 • 보험학과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협의 • 기타 동독대 석사과정 유학생 추천, 보험학 교과목 2개 내외 개설 추진, 향후 상호교류방안, MOU체결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관련 과목은 경제학과 등에서 일부 다루고 있음 • 라오스 대학 졸업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 통신사 임직원 그리고 금융기관 임직원임 • 라오스 보험시장은 재산보험(자동차보험, 화재 보험)등 손해보험이 주를 이루며 생명보험시장은 미개척 분야 즉 자동차보험 같은 책임 보험 위주의 시장이 형성 • 수파누봉대학교 보험학과 신설 후 졸업생이 배출될 경우 현재 라오스에 진출 해 있는 외국합자 보험회사 에 취업기회가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보험교육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보험학과 신설시 라오스 보험 관련 임직원, 판매원들의 자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현재 라오스는 금융업이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보험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
설문 조사	수파누봉대학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제도의 존재는 응답자의 70%가 인지 • 보험제도의 필요성은 95%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 • 보험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응답자의 83%가 공감 • 보험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응답자의 58%가 인지 • 대학에서 보험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100%가 공감 • 응답자의 98%가 보험학과 졸업 시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 대학에서 보험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교육과정이라고 응답 • 보험학 외에 중요한 과목에 대하여는 경제학 등이라고 응답

자료 : 제2기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현지조사 종합보고서,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 보험학과 신설 수요 조사(2017)

또한 국민의 금융지식 부족은 저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 및 국내자본 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어 각종 사업기회를 통해 국민소득을 올려야 하는 라오스 경제발전전략에 장애가 되고 있다.

보험금융분야 고등교육 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취업률을 높일 것이고 궁극적으로 라오스의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라오스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는 국민저축과 해외직접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민저축 진흥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금융교육과 금융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 금융보험교육 분야 역량강화 방안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개도국의 빈곤해결이며, 그 외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산, 평화와 안전 유지, 지속가능 개발 등의 추가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빈곤문제 해결은 최소한의 생계와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기초문제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일시적인 물적원조 보다는 경제발전과 취업을 촉진하도록 하는 국제개발협력이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취업 활동을 촉진하는 지식공유 프로그램이 적극 개발되는 한편 무역이나 경영과 관련된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역, 금융, 보험 등 서비스분야 고등교육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해서는 아직 가시적인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궁극적인 빈곤탈피를 위하여 보험분야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근로기회의 확대 제공, 보험분야 역량개발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험분야의 발전은 금융발전 및 투자촉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기업활동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시급성이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의 바탕이 된 실제 제안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르면 보험을 통한 국제개발협력활동은 의식주 등 일차적 욕구에 비하여 후순위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무역, 보험 등 서비스분야 고등교육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사례집적과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보험분야 국제개발협력 실제 경험사례연구를 통하여 라오스의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보험교육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교육과정 개선 및 보험교육교재 개발이다. 수파누봉대학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험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교육과정의 개선 및 보험교육교재의 개발 등 보험교육 운영지원을 추진한다. 보험교육과정은 라오스의 대학제도에 적용 가능하며 동시에 수파누봉대학교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정규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에 편성하기는 곤란하지만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비교과교육프

로그래를 포함하여 개선되도록 한다. 둘째, 비교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이다. 보험교육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교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을 통해 수파누봉대학교에서 배출되는 보험전문 인력이 취·창업하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보험교육을 위한 비교과교육프로그램은 현장실습(Study Tour), 인턴(Internship), 졸업프로젝트(Graduation Project) 등으로 나누어 개발할 것이며, 초기(1사업연도)에는 라오스의 보험회사 및 지역 보험판매조직과의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보험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각 교과목의 교재는 라오스의 교육제도에 적절한 내용(수준) 및 분량으로 개발하되 수파누봉대학교의 다른 교육분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 대학교재를 참고할 것이며, 먼저 영어/한국어로 개발한 후 수파누봉대학교의 교수 등 현지 공저자의 번역을 통해 완성되도록 한다. 개별 교재개발 과정에서는 선임된 국내의 대학 및 보험산업의 교수전문가가 수파누봉대학교의 교수 등 현지 저자와 팀을 이루어 직·간접적으로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될 교재의 내용(수준)이 담보되도록 한다. 셋째, 보험교육프로그램 홍보지원이다. 보험교육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되고 있음을 라오스 전 지역에 알리는 동시에 우수한 입학자원을 모집하기 위한 수파누봉대학교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며, 보험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개발·제작하여 제공한다. 넷째, 보험교육활동 지원이다. 수파누봉대학교에서 보험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내용을 ① 보험교육과정의 개선, ② 보험교육교재의 개발, ③ 비교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④ 홍보활동 지원 등의 세부 추진사업별로 재검토하는 한편 통합조정하여 환류(feedback)한다. 수파누봉대학교에서 보험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사업별로 연 2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보험교육교재의 개발과 관련하여 운영되는 세미나는 연 1회 개최하여 공저자 사이에 교재의 세부목차나 저술방향 등이 협의되도록 하는 동시에 공개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교재개발이 보험교육과정에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V. 결론과 시사점

국제개발협력은 국제적, 국가간 경제활동이나 무역처럼 양방향 거래와 달리 일방적 모습을 갖는다. 즉, 개발협력은 수출입과 같이 단기적인 대금결제와 일어나거나 직접투자 와 같이 장기적인 투자금 회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유무상 원조나 명시적 대가성

이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서비스, 자본, 기술, 인력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대부분의 개발협력은 궁극적으로 공여국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데, 이는 수원국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진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국제개발협력은 초장기적인 국제거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해외직접투자나 무역과 유사성이 높다.

본 사례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보험 측면의 개발협력에 대한 시선은 아직 회의적으로 보인다. 이런 간접적, 축진적 분야의 지식 공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가능해 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무역의 경우에도 개방경제 운영으로 인한 실익이 있다는 점을 수원국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개방과 무역의 장점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 또는 신자유주의 개념의 무역은 그들에게 이득보다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여지도 적지 않다. 그 경우 무역학 교육지원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은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발협력은 수원국이 원하는 것을 넘어서 수원국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여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아울러 일반적인 경제발전의 패턴과 개도국별 경제사회 환경의 차이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수원국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거의 경험과 이론적, 통계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전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개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국제개발협력학회(2016), “제1기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현지조사 종합보고서”, 서울: 국제개발협력학회.
- 권율·이주영(2013),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ODA예산제도 연구: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김영국(2017), “한국국제협력단(KOICA) 체육교육봉사단원의 국제개발협력활동 사례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태(2012),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적정기술의 의미와 활용 및 사례연구 - 수요중심과 시장중심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012년 제4호, pp.63-85.

- 남상욱(2006), “보험업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한국보험학회』, 제74권 제74호, pp.169-197.
- 박형준(2015), “대규모 ODA 프로젝트 사후관리 실태평가 연구”,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윤종혁 외(2013), “사업의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나래(2012),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도시화에 기여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방향 연구 - 국제개발처(USAID)의 대한원조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호건(2016), “촉진적 원조를 통한 수원국과의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1권 제1호, pp.117-138.
- 장준호(2011), “세계위험에 대한 유럽의 국가와 시민사회 대응: 지속가능전략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9권 제1호, pp.7-31.
- 정지선·오탈현(2013),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정홍주, 박현재, 성수남, 임목삼, 최유미 (2013), “무역학 교육지원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고찰: 인도와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8권 제3호, pp.103-125.
- 정홍주·정희수·최미수(2000), “보험, 저축, GNP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보험학회』, 제56권, pp.91-115.
- 조광걸(2016), “KOICA 역량개발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모델 및 프레임워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호, pp.165-186.
- 조성제(2013), “국제개발협력시대의 우리나라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 (ODA) 개선과제”, 제38권 제5호, pp.347-368.
- 지명근(2017), “공적개발원조(ODA) 집중도의 결정요인-2002~2015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재은·김철우(2014),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세종특별자치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최창환 (2013),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지원 결정요인 분석”, 무역학회지 제38권 제5호, pp.369-383.
- KOICA ODA 교육원(2014), “2014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가이드라인”, 성남: KOICA ODA 교육원.
- 한국은행(2016), “2014년 산업연관표”, 서울:한국은행 경제통계국

- Bhattacharya, Anabil (2016),“Community Based Micro Insurance – the Indian Context,”
Journal of the Insurance Institute of India, Oct-Dec, Vol.4 Issue 2, pp.53-83.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2011), “*Micro-Insurance for the ultra poor*”,
Dhaka, UNDP Bangladesh
- Valverde Lopez, Alvaro (2011), “*Can Mobile Micro-Insurance be used as a Tool for
Poverty Reduction? : Case Study of Klima Salama in Kenya*”, Saarbruecken, AV
Akademikerverlag
- Van, Leeuwen, Marco H.D.(2016), “*Mutual Insurance 1550-2015: From Guild Welfare
and Friendly Societies to Contemporary Micro Insurers*”, SpringerLink, London,
Palgrave Macmillian UK.
- Ward, D. and Zurbruegg, R.(2000), “Does Insurance Promote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67,
No. 4.
- 何欢(2009), “小额人身保险发展的国际比较分析及启示”, 西南财经大学 硕士学位论文.
- 何永嘉(2009), “我国小额保险的运作模式研究”, 「华北金融」, 2009年 第11期, pp.38-40.
- 刘爽·李芳(2011), 「小额保险"孟加拉国特点"之思考」, 北京市: 中国保险
- 林熙·林义(2008), “印度农村小额保险发展经验及启示”, 「保险研究」, 2008年 第2期, pp. 90-93.
- 小勝 康夫(1993), 「生命保險の發展と金融」, 白挑書房.

A Case Study on Pursui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Focusing on Insurance education in a Lao University

Hong-Joo Jung, Sang-Rim Lee,
Jeong-Hyun Son, A-Reum Choi,
So-Young Lim, Hsuan-Hui Wang

Abstrac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DC hereafter), which closely relates to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gaining global importance regarding diplomatic relations and economic cooperation. As Korea contributes increasing resourc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should play a larger role in the IDC along with increasing academic cooperation, implying more necessity to grow research on the IDC as a crucial element of international trade. The IDC has focused on the provision of basic human needs, such as food, shelter, and clothing. However, higher education has not yet be explored for its effectiveness or validity as to service area including foreign trade or insurance.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existing IDC literature, to propose a project for insurance education, and to provide alternative ways for future development of the IDC.

This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First, the literature review begins with the IDC's history and development, review of traditional methods of providing basic human needs (food or sheltering) and public health, importance of job creation and business activities to alleviate poverty, and the introduction of insurance education as a vehicle to reduce poverty. Results of the case study provide implications for service area projects including foreign trade education.

(Key Wor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os, Insurance, Capacity building, Higher education